조계종, 총선 앞둔 후보들에 정책 제안

문화재관람료 등 현안 해결방안 담아 3000부 배포

전통문화 발전 · 사회통합 주제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비롯
전통사찰 중복규제 완화 제안
차별금지법 필요성 재차 강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이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불교 현안에 대한 정책자료집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3000부를 배포했다. 자료집은 '전통문화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대주제로 구성됐다.

조계종이 자료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이다. 문화재 보유 사찰의 관람료 징수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져 온 과제다. 특히 지난해 6월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헌법소원을 언급할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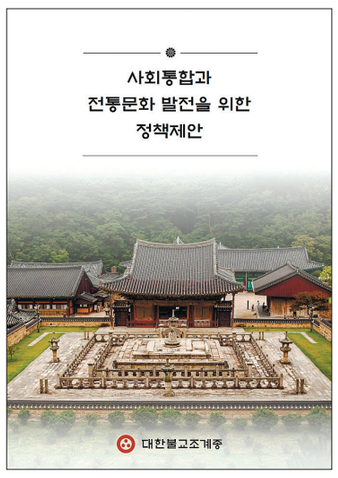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번 자료집에서도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을 야기한 정부 관계 부처의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지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국립공원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가칭 '국가공원청' 승격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에 대한 가치,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보상 절차 명문화가 어려울 경우 사찰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조계종은 국립공원 면적 총 3972㎢ 중 7%에 달하는 279㎢를 소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계종 소유 토지가 국립공원 내 핵심지인 데다 월정사의 경우 오대산국립공원 경제적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계종은 보고 있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에 이어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국가 문화재 정책이 국유 문화재를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민간문화재는 지원보다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관점으로 관리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유산은 47.7%를 차지한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해 불교문화재 전담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문화재 소유별 균형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궁궐, 왕릉, 유적 등의 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편중된 것에 대한 형평성을 요구한 것이다.



조계종이 여야 각 정당에 배포한 불교현안 정책자료집.

이와 함께 조계종은 "문화 · 역사 · 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 법령의 중복된 규제로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가 제한된다"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형 전통사찰들이 재정 부족으로 겪는 시설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50%를 명문화할 것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보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사회통합 부문에서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차별금지법은 불교계가 수년 전부터 이웃종교계와 연대하며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인해 법안 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조계종은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12일 차별금지법이 상정됐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속적으로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찰 주변 산림 가꾸기, 북한 문화재 공동조사 및 발굴 복원 등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남북불교 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계종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여야 각 정당과 전국 교구본말사에 배포한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춰 전국 253개 지역구 모든 여야 후보 캠프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 '보시행' 성금 답지

해인총림 해인사 비롯해
말사 · 문도회 등 기부 동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는 불교계의 자비행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 단위 사찰과 문도회, 각 기관단체가 나서 성금을 곳곳에 기탁하고 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23일 대구시청을 방문,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해인사는 25일 경북도청과 경남도청에 각 1000만원, 합천 지역민을 위한 마스크 5000장도 기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모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도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성금 2000만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영화사 총무 화평 스님은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현장 소식을 접한 월주큰스님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영화사도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단 취지에 맞춰 작은 정성을 보탠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서울 영화사가 3월 25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2000만원.

비구니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청해문도회(문장 성련)는 같은 날 1000만원의 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문장 성련 스님(대전 관음사)과 재무 대안 스님(산청 금수암)이 참석했다.

성련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다. 종단뿐만 아니라 사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종단이 역할을 잘 해주셔서 위안이 된다"면서 "종단이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문도스님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도 앞서 라디오와 TV 특별생방송을 통해 모연한 성금을 이날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선재 불교방송 사장과 박경수 보도국장, 문태준 라디오제작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총 1억2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선재 사장은 "라디오와 TV 방송을 접한 불자들의 모금 행렬을 보고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 불자들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함께하고자 성금을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이 아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보시행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호섭 · 하성미 기자

동국대 '착한 임대운동' 동참한다

창업원, 108개 입주기업 30% 임대료 감면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와 고양캠퍼스(BMC)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108개 기업이 4월부터 3개월 간 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3월 기준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는 19개 스타트업이, 고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89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동국대가 참여하는 '착한 임대운동'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일정기간 내 임대료 인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운동이다.

김대영 동국대 창업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착한 건물주 운동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다각적인 창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IT · 문화콘텐츠(서울), BIO · MEDICAL(고양) 특화분야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선도할 스타트업을 발굴 · 지원하고 지역연계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신흥사 지혜 · 백양사 무공 스님 주지 임명


지혜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 지혜 스님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 무공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1975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불교복지학과에 이어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육철학과를 졸업했다. 삼화사와 능인사, 명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서 암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승가대학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비정규직 PD의 자살, 진상규명하라"

조계종 사노위, 이재학PD 49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3월 23일 CJB청주방송국 사옥 앞에서 故이재학 PD의 49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PD는 2004년부터 14년간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며 동료 프리랜서 피디를 대신해 인건비 인상과 인력 충원,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 처우 개선에 나서다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위원장 혜찬 스님은 "방송현장에서 제2의 이재학이 나오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에 따르면 이 PD는 아이템 선정, 섭외, 구성, 촬영, 편집 등 정규직 PD와 같은 업무로 14년을 근속했지만 월급은 16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사측에 노동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고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다 조직적인 진실은폐를 견디지 못한 채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회노동위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며 "고인의 49재를 맞아 고인의 명예회복과 극락왕생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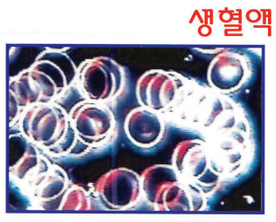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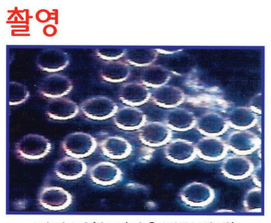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비누(BLOOD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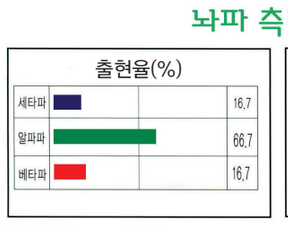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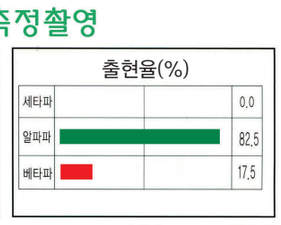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가 없고 이들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치약(ORAL MATE®)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삼키면
1. 폐렴균에 의한 질환 개선. 2. 식중독, 소화불량, 배탈, 설사를 예방. 3. 과식,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숙취해소 약을 먹는 것 보다 속이 빨리 편해지고, 술이 빨리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4.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치약을 아픈 부위에 발라 놓으면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비누(BLOOD MATE®)를 단 한번 쓰고, 연전현상의 적혈구가 정상적 적혈구로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으며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